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투명성이 우수하며, 높은 기계적 강도와 내수성, 내화학성, 기체나 수분 투과 차단성이 우수한 포장재이다.

시트 형태로는 샌드위치 케이스 등에 사용되고, 용기 형태로는 생수, 식용유, 탄산음료, 맥주, 소주 등의 병으로 많이 사용된다.

필름의 형태로는 커피, 과자, 햄, 맛살, 레토르트파우치 등 포장의 인쇄면인 외면에 사용되며, 주로 기능성을 부여하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알루미늄에 증착하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는 SKC(주)를 필두로,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등 5개사가 PET필름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PET 필름은 식품포장이나 전자부품, 공업재료, 자기재료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근래에 와서 자기 테이프용의 쇠퇴와 포장장용의 정체로 인하여 주요 시장이 공업용으로 전환되어 전자부품, IT, 광학 관련 분야가 활성화돼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광학용 폴리에스터(PET) 필름 업체들이 잇따라 증설 투자를 단행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과열 경쟁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SKC · 코오롱 · 미쓰비시 · 도레이 등 국내외 주요 업체들은 광학용 PET 필름 라인을 최근 증설했거나 연내 추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산업용 PET 필름을 생산해 온 효성도 광학용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PET 필름 16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KC(주)는 지난 해 14만톤을 생산, 이 가운데 4만톤을 수출하고 10만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국내외에도 미국에 3개 라인을 보유, 4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포장용으로 생산, 공급하는 비중은 1백톤 미만, 게다가 내수물량은 전무한 현실이며 열수축 외 특수포장용으로 1,700톤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모두 올해 중 PET 필름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지금, SKC 역시 지난 해 말 진천에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9월경 중국에도 2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열수축 라인과 광학용 라인으로 구성, 각

〔표 1〕 PET 필름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6	140,000	40,000	100,000
도레이첨단소재(주)	11	125,000	25,000	80,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0	100,000	40,000	60,000
화승인더스트리	1	15,000	6,000	9,000
(주)효성	1	20,000	4,000	16,000

각 월 1천톤 가량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SKC(주)는 연 20만톤으로 가량의 PET필름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10개의 PET필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지난 해 10만톤을 생산, 4만톤을 수출하고 6만톤을 내수로 소비했다. 수입산 PET필름 및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망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경우 포장용 및 광학용의 비중이 각각 40% 가량이며, 기타 산업용으로 20% 가량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의 경우 올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판매할 계획으로, 필름 성장률은 -10% 가량으로 내다봤다.

도레이첨단소재(주)의 경우, 총 11개 라인을 보유, 연 12만5천톤을 생산함으로써 SKC(주)의 뒤를 잇는 PET 필름 최대 생산기업이다. 지난 해 2만5천톤을 수출하고 국내에 8만톤을 공급한 도레이첨단소재(주)는 포장용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포장용의 경우 수입산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1997년부터 PET필름 생산을 시작한 (주)화승인더스트리는 1개라인을 보유, 연 1만5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6천톤을 수출, 국내에 9천톤을 공급했다. 현재 화승은 포장용으로 약 15% 가량, 레토르트용도 10%, 라미넥스용 17%, 스템핑 포일용으로 17% 가량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해외 저가필름의 지속적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화승 역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 필름 성장률은 감소하거나 정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입필름의 지속적인 확대 및 라인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현상을 발생되고 있어, 이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 및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장용 필름 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필름 영향이 매우 커 시장이 잠식되거나 점유율이 하락될 것으로 지적했다.

화승인더스트리와 같은 1997년부터 PET필름 생산을 시작한 (주)효성은 1개 라인 연 2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에 4천톤을 수출하고 1만6천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포장용 수입물량 증대로 인해 판가가 하락되고 있는 현재, 효성은 포장용으로 74% 가량, 산업용으로 26% 가량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광학용 필름라인 및 산업용 필름 라인을 각각 1개씩 증설 중으로 준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트리아세틸셀룰로스(TAC) 필름으로 LCD용 필름 시장에 진출한 효성은 광학용 PET 필름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광학필름 업체인 신화인터텍을 인수했다.

이처럼 PET 필름 업계는 그 생산 능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 과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 도레이, 도요보 등 일본 광학용 PET 필름 업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에서만 PET필름 제품을 일본 판매가보다 20%

〔표 2〕 Nylon필름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7,600	4,500	3,100
(주)효성	2	10,000	4,000	6,000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12,000	4,200	4,200~4,80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옴에 따라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광학용 폴리에스터(PET) 필름 생산 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를 불공정 덤핑 행위로 규정, 제소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광학용 PET 필름 시장규모는 약 6000억원대로, 한국은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 1, 2위 LCD TV 생산 업체가 모여 있는 가장 큰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가전업계 시장이 침체되면서 광학용 PET 필름 생산물량을 자국 내에서 모두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국내로 판로를 돌려 가격 경쟁에 나선 것"이라며 "최근에는 엔화 약세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삼성, LG전자와 같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LCD 디스플레이 대 메이커를 갖고 있는 것이 강점라는 판단으로 국내 PET 필름메이커들은 고기능성 광학필름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인 IT, 정보 통신 부문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새로운 고기능성 필름 분야의 연구 개발에 집중 노력하고 전자업체와 협력하여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PET 필름과 Nylon필름가스투과도 비교

구분	O2	CO2
PET 필름	0.08	0.2
Nylon필름	0.03	0.1

※ (단위 : g/㎡24hr. atm)

한편, 국내 나일론필름 시장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舊 자강산업)가 하니웰의 9천톤 공장을 2009년 말 인수한 뒤 2010년 1월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코오롱, 효성과 함께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일론필름은 비교적 특수필름으로써 내핀홀성(필름 표면에 생길 수 있는 미세한 작은 구멍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이 높아 장기간 식품을 보관하거나 진공을 요하는 포장지에 주로 사용된다.

가스 투과율이 낮으므로 OPP 필름과 같이 가격은 저렴하나 가스 투과율이 높은 필름과 나일론 필름 등을 합지하거나 코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프로세스가 발달하였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월 1천톤 가량을 생산, 연 1만2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월 350톤을 국내에 공급하고 월 350~400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직판 비중이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차별성을 갖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주)효성은 각각 2개의 나일론 필름 생산라인을 갖고 있으며, 코오롱은 연 7천6백톤을 생산, 이 가운데 4천5백톤을 수출하고 나머지를 국내에 공급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은 수입산 및 내수 경기 악화로 인해 필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품 개발을 통해 내수 판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효성은 총 1만톤을 생산, 수출과 내수 비중은 40:60 가량이다. 국내 시장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나일론 필름 시장은 전년과 동일 규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ko